

佛陀의 在家兒童觀 *

忠北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科 講師

백 경 임

目 次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2. 研究方法 및 資料

II. 佛敎에서 본 兒童의 意味

1. 人間發達段階
2. 兒童의 意味

III. 佛陀의 在家兒童觀

1. 父母와 子女와의 關係

2. 父母의 役割

- 1) 經典에 보이는 어머니像
- 2) 子女에 대한 父母의 義務
- 3) 社會人으로서의 父母의 義務

3. 子女의 役割

IV. 結 論

參考文獻

英文抄錄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本 研究는 佛敎의 教主인 佛陀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佛陀가 在家의 兒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어, 이것을 現代의 兒童觀에 전주어 봄을 目的으로 한다. 在家라 함은 佛敎의 修行方法인 出家修道에 相對되는 말로써 世俗의 生活을 말한다. 따라서 一般家庭의 兒童을 佛陀가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이 되겠다. 兒童觀은 「兒童을 어떤 存在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일관된 觀念으로서, 이 觀念 가운데는 兒童에 대한 태도나 기대 또는 取扱方式 및 評價의 문제가 포함되는 것」¹⁾으로서, 本 研究도 이러한 觀點에서 진행될 것이다.

韓國의 兒童觀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자면 단순히 西洋理論의 受容을 넘어서서 韓國의 사상과 價值觀을 지배해 온 傳統的 思想과 학문적 만남이 필요하다. 따라서 韓國文化의 深層을 지배해 온 重要한 思想 가운데 하나인 佛敎의 兒童觀 研究는 韓國의 새로운 兒童觀 確立을 爲해서 대단히 意義있고 必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研究方法 및 資料

이 연구에서는 주로 原始佛敎經典에 散見되는 在家의 兒童에 關連되는 文面들을 분석·검토하는 方法을 택한다. 여기에서 原始經典을 택한 이유는 佛敎의 방대한 文獻 가운데 原始經典이 가장 佛陀의 肉髻에 가까운 內容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原始佛敎는 佛陀석가모니가 이 世上에 生存해 있을 때 부터 涅槃 후 100年 경까지의 佛

* 본 연구는 동국대학 대학원 1980학년도 석사 학위 청구 논문임.

1) 朴先榮, 佛敎의 教育思想(서울: 同和出版公社, 1981), p. 148.

教思想²⁾을 말한다. 그리고 이 佛敎思想을 담고 있는 原始經典中 北傳의 《四阿含經》과 《四分律》 및 《法句經》과 南傳의 五部尼柯耶 가운데 《숫타니파아타(經集)》·《長老偈》·《長老尼偈》 등 小部經이 이 연구의 中心 資料가 될 것이다.³⁾

II. 佛敎에서 본 兒童의 意味

1. 人間發達段階

佛典에서는 人間一生의 變化과정을 胎內와 胎外로 大別하고, 다시 각각 몇 단계로 나누고 있는 바, 이는 곧 佛敎의 人間發達段階說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胎內, 즉 母胎에서의 人間發達段階에 대한 佛典의 文面들을 검토해 보면 4期·5期·8期 등의 몇 가지 段階說이 있어 일정치 않다.

4期說은 《全七十論》에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胎兒의 受胎로 부터 일주일 동안을 칼라람칼라라(Kalalam Kalala)期라고 하고 胎兒의 제 2주를 아룬다아르부다(Arbunda Arbuda)期라 하며 胎兒의 제 3주를 헤이시(pesi)期라 한다. 그다음 카나(Ghana)期는 본 4期說에선 4週이후 出産까지의 總稱으로 삼고 있는 듯하고 다음 살펴 볼 5期說이나 8期說에선 제 4주의 胎兒만을 말하고 있

다. 다음 5期說은 앞의 4期說에 5주이후 出産까지의 總稱으로서의 프라사카하(prasaha)期를 添加한 것인데 이 프라사카하期는 다음 8期說에선 5주의 胎兒만을 나타내게 된다. 본 5期說은 《順正理論》⁴⁾·《增一阿含經》등에 보이며 이 가운데 原始經典인 《增一阿含經》을 보면 다음과 같은 內容이 發見된다. 이로 볼 때 5期說로 發展할 수 있는 端緒를 보이고 있을 뿐 아직 5期說이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세존께서는 곧 다음 偈頌으로 말씀하셨다.

먼저 受胎하게 되어 점차 얼은 소(酥)와 같이 되고 드디어 우무버섯 같아지고 뒤에는 어떤 형상을 이룬다. 머리와 목이 먼저 생겨 차츰 손과 발이 생기고 온갖 뼈마디 각각 생기며 터럭과 손톱, 발톱, 이빨이 형성된다. 만일 그 어머니가 온갖 음식과 갖가지 요리를 먹을 때는 그 정기로서 살아가나니 胎를 받은 목숨의 근본이니라. 그로써 형체는 이루어지고 모든 감각기관은 완전히 갖추어 어머니로 말미암아 나게 되나니 胎를 받는 피로움이 이와 같다.⁵⁾

다음 8期說은 5期說에 제 6주의 胎兒를 나타내는 케사로마나카(kesa-roma-nakha)期와 胎兒의 제 7주를 나타내는 根位期와 胎兒의 제 8주 또는 出産까지의 總稱으로 쓰이는 形位期를 添加한 것으로 《瑜伽論 2》에서 볼 수 있다.⁶⁾

다음 人間의 出産한 후의 發達段階說에 해

2) 金東華, 原始佛敎思想, 佛敎思想大全 2(서울; 佛敎思想社, 1973), p. 18.

* 본 研究에 있어서 《大正新修大藏經》의 文獻은 다음과 같은 略號로 표시한다.

T. 番號: 《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된 文獻의 차례 番號
(Vol. 番號): 《大正新修大藏經》의 製冊차례에 따른 卷표시
K. 番號: 《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된 文獻內의 卷番號
①·②·③: ①는 上段, ②는 中段, ③는 下段

3) 福永勝美, 洪元植譯, 佛敎醫學詳說, (서울; 醫藥社, 1975), pp. 229 - 231 참고.

4) T. 1562 (Vol. 29) 阿毘達磨大順正理論, K. 40, p. 571 ①.

5) T. 125 (Vol. 2) 增一阿含經, K. 30, p. 714 ①.

“先當受胞胎 漸漸如凍酥 遂復和息肉 後轉如像形
先生頭項頸 轉生手足指 支節各各生 髮毛爪齒成
若母飲食時 種種若千饌 精氣用活命 受胎之原本
形體以成滿 諸根不斂漏 由母得出生 受胎苦如是”

6) 福永勝美, 前掲書, pp. 229 ~ 232 참고.

당하는 佛敎의 몇 가지 說을 찾아보면 四期·五期·十期說이 있다. 四期說은 《舍利弗論》에 보이며 嬰孩·童子·少壯·衰老로 나누는 것이다.⁷⁾ 또 五期說은 《大毘婆沙論》에선 初生·嬰孩·童子·少壯·衰老로 나누고 있고⁸⁾ 《順正理論》과 《顯宗論》에선 嬰孩·童子·少年·中年·老年으로 나누고 있다.⁹⁾ 그리고 十期說은 《寶積經》에서 찾을 수 있는 嬰兒·童子·少年·少壯·盛年·成就·漸衰·朽邁·極老·百年의 구분¹⁰⁾이다. 한편 《順正理論》에선 有情, 즉 動物이 六道를 輪廻하는 경우 今生과 次生の 中間에 있는 存在로서의 中有를 넣어 人間의 一生을 11位로 나누고 있다.¹¹⁾ 이상에서 確認되었듯이 佛敎에서는 人間의 發達段階를 胎内の 시기에서부터 다루고 있다. 이점은 出生하면 한살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傳統社會의 人間觀과도 상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現代에 와서 胎兒期의 重要性을 認定하여 胎兒學으로 發達하는 오늘날의 人間觀으로 볼 때 대단히 先覺者的인 觀點이라 하겠다.

2. 兒童의 意味

兒童의 定義는 대체로 「心理學에서는 身體的 成長 및 精神의 成長이라는 觀點에서, 醫學에서는 人間의 發達形態에 따른 成熟度를 기준」¹²⁾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發達心理學과 醫學에서의 兒童이란 6~12才의 특정 시기를 지칭¹³⁾한다. 또 우리나라 法에서 살펴보면 兒童福祉法(제 2조)에서는 18才까지를 兒童으로, 民法(제 4조)에서는 20才미만

을 未成年으로, 生活保護法(제 2조)에서는 18세 미만을 兒童으로 규정함으로써 兒童이란 精神的 肉體的으로 未成熟한 18세·20세 미만의 人間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佛經에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兒童이란 用語가 직접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또 肉體的으로 成熟하였어도 대부분의 人間 전부가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한 存在로 認識되고 있다. 따라서 굳이 未成年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肉體的 未成年에 해당하는 佛敎用語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운허의 《불교사전》에 의하면 胎外五位를 嬰孩: 出生~6才, 童子(女): 7~15才, 少年: 16~30才, 成年: 31~40才, 老年: 41才이후로 나누고 있다.¹⁴⁾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명확치 않으나 이 구분에 의한다면, 그리고 佛敎에서 人間을 受胎에서부터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또 兒童을 넓은 의미에서 未成熟者로 규정한다면, 앞 節에서 살펴본 人間發達段階 가운데 胎內期間과 初生·嬰孩·嬰兒·童子(女)·少年期の 初期를 모두 兒童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胎内の 時期는 業感緣起說의 宗教的인 解釋이 必要함과 동시에 胎兒學 次元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또 初生·嬰孩·嬰兒에 대한 기록은 原始經典에서는 뚜렷치 않다. 그러나 童子란 用語는 비교적 두루 쓰이고 있어 오늘날의 兒童에 대신하는 概念이 되고 있다. 童子의 用例解說은 이미 朴先榮에 의해 考證되어 論斷한 바 있거니와 佛敎敎團內에서의 童子는 出家修行을 원하나 아

7) 上掲書, p. 228.

8) T. 1545 (Vol. 27) 阿毘達磨 大毘婆沙論, K. 114, p. 595 ㉔.

9) T. 1562 (Vol. 29) 阿毘達磨 順正理論, K. 40, p. 571 ㉕.

T. 1563 (Vol. 29) 阿毘達磨 藏顯宗論, K. 21, p. 876 ㉖.

10) T. 310 (Vol. 11) 大寶積經, K. 57, p. 332 ㉗.

11) 앞의 「註 4」와 같음.

12) 朱貞一, 李素希, 兒童福祉學(서울: 敎文社, 1981), p. 23.

13) 上掲書, pp. 23~24 참고.

14) 운허·용하, 불교사전(서울: 법보원, 1961), p. 885.

직 受戒치 못하고 준비과정에 있는 男子를 말하며 보다 一般的으로는 8才이상의 未婚 男子를 총칭하는¹⁵⁾ 말이다. 또 童女란 性別만 다를 뿐 그 概念은 童子와 같다. 즉 佛教의 童子・童女는 오늘날의 兒童의 概念인 것이다.

III 佛陀의 在家兒童觀

佛陀는 修道에 專心하기 爲해서는 出家集團인 僧團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出家가 누구에게나 適切한 修行方法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佛說給孤長者女得度因緣經》에 보면 딸의 結婚을 의논하는 長者에게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長者야! 네 딸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될 것이 아니다. 저 곳으로 시집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 네 딸이 만일 牛授童者에게 시집간다면 큰 佛事들 지어 最上의 吉祥을 가져올 것이다.¹⁶⁾

라고 하여 出家보다 結婚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佛陀는 在家兒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 父母와 子女와의 관계・父母의 역할・子女의 역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1. 父母와 子女와의 관계

原始經典 속에 보이는 佛陀의 父母・子女觀은 매우 폭이 넓다. 「아이들은 어른의 안식처」¹⁷⁾ 라는 表現이 있는가 하면, 子女들 空으로 觀照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서로 相反되는 사상이 아닐까. 이 문제는 관련된 佛經의 文面들을 면밀히 檢討해

봄으로써 解明될 수 있을 것이다. 經典속에는 出家者인 父母에게 說한 內容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子女에 대한 愛着을 無常으로 받아들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說한 內容이 많다. 그 具體的인 內容을 하나씩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佛陀는 모든 사람 가운데 특히 어머니의 子女에 대한 사랑을 가장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보았음에 틀림없다. 이를 引證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慈悲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와같이 어디서나 모든 衆生에게 慈悲를 베풀어 주라.¹⁸⁾

굿타아여, 아기처럼 사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큰 이익 얻기 위해 집을 떠났거나 너는 이익을 더욱 끌리고 부디 그 마음의 죄수가 되지 말라.¹⁹⁾

위와같은 文面은 子女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본 佛陀의 父母・子女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佛陀는 이 큰 사랑이 愛着이 되기 쉽고 이 愛着은 修行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점은 그가 出家修道中 그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라훌라가 생겼구나”라고 외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梵語 Rahula는 「障礙」를 뜻하는 말인 바, 佛陀는 자식의 탄생을 곧 자기 자신의 修道에 障礙物이 생긴 것이라고 歎息한 것이 그대로 아들의 이름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佛陀는 《法句經》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단장한 妻子에 탐착하는 愛欲을 튼튼하다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愛欲은 깊고 튼튼한 감옥이니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끊어 버려라. 愛俗은 멀리하면 편안하리니²⁰⁾

15) 朴先榮, 前掲書, pp. 149 ~ 150 참고.

16) T. 130 (Vol. 2) 佛說給孤長者女得度因緣經, p. 846 ㉔.

“長者, 汝女不應剃髮出家 當聽往彼乃爲甚善 彼女若至福增城中 而能廣大施作 佛事最上吉祥”

17) 法頂編,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 샘터사, 1977), p. 74 에서 재인용.

18) “장노계”, 한글대장경 16-2 (서울; 동국역경원, 1969), p. 333.

19) “장노니계”, 한글대장경 16-2 (서울; 동국역경원, 1969), p. 538.

20) T. 210 (Vol. 4) 法句經, p. 571 ㉔.

“愚見妻子息 染著愛甚牢 慧說愛爲獄 深固難得出 是故當斷棄 不視欲能安”

자식이라 하여 믿을 것 없고 아버지, 형도 믿을 것 없네. 죽음의 핍박을 받을 때에는 어떤 친한 이도 믿을 수 없네.²¹⁾

라고 하여, 자녀사랑이 큰 執着이 될 때 修道에 障礙가 된다는 子女觀을 보여주고 있다. 또 佛陀는 딸을 잃고 무덤에서 슬피우는 어머니 웃비리에게

“내 딸 지이바아여”하고 부르면서 숲속에서 울고 있구나. 自身을 알라, 웃비리여. 8만4천 사람 모두 지이바아라 불리우며 이 무덤에서 사라졌거니 너는 그 중에 누구를 잊하느냐.²²⁾

라 하여 輪廻轉生하는 人間觀과 모든 사람이 다 나면 죽는다는 生死의 當爲를 說하여 그의 슬픔을 덜어주고 있다. 또 아래와 같은 아야시치이니長老尼의 偈頌에서도 佛陀가 子息 잃은 어머니로 하여금 愛欲과 執着은 피로움의 根源임을 깨달아 편안한 마음이 되어 佛法에 歸依케 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아이걱정으로 피로와 하며 마음은 어지러워 미칠 것 같아 발가슴이 몸으로 머리칼을 흘날리며 이리저리 헤매다녔다. 골목과 높은 흙무더기, 무덤, 큰 길거리들 굽주리고 목 마르면서 헤매다니기 3년이었다.…… 부처님 說法 듣고 救濟를 입어 집을 떠나 알뜰한 마음으로 스승님 敎訓시켜 이 安穩한 길을 증득하였다. 모든 근심은 끊기고 버려지고 여기에서 끝이 났나니 왜냐하면 모든 근심 생기는 因을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²³⁾

그러면 어떠한 說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을까. 그 內容이 具體적으로 說해 있지는 않지만 다음 차타아차아라라는 비구니

의 偈頌에서 類推해 볼 수가 있다. 子女를 잃은 5백명의 어머니-그 당시 전쟁등으로 고아나 子女 잃은 부모가 많았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오는 이나 가는 이나 그들 다 같이 그들의 오가는 길 알지 못하거늘 어디서 오는 어떤 衆生을 “내 아들이다”하여 슬피우는가. 오는 이 가는 이의 그 길을 알더라도 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와같이 오가는 것은 生이 있는 衆生의 法이기 때문이다. 求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오고 許諾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떠났구나. 그는 어느 곳에서 여기 왔다가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가. 여기서는 다른 衆生 되어가고 저기서는 다른 衆生 되어오며 죽은 이는 사람 모양 바뀌 오거니 가는 듯이 온다면 거기 무엇을 슬퍼하라.²⁴⁾

위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고통을 제거한 어머니들의 대답하는 偈頌으로 經은 이어진다. 또 《雜阿含經》에서도 子息을 잃어 미치기까지 했던 바야시티이를 佛陀가 濟度한 內容을 볼 수 있다. 佛陀로부터 濟度받은 바야시티이는 男便에게 다음의 偈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佛陀의 父母・子女觀을 反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子孫이 수천 있어도 因緣의 화합으로 생긴 것이다. 영원히 서로 갈려 떠나가거니 나와 그대도 또한 그러하니라.²⁵⁾

이것은 佛教以前부터 있어온 印度의 輪廻思想을 그대로 受用한 佛教의 人生觀을 反映한 것이거니와, 사람의 人生은 단지 一回의 인 生이 아니라 六道輪廻 가운데 因緣으로 만나 現生에서 父母와 子女의 관계가 임시 성

21) 上揭書, p. 559. ⑥.

“非有子侍 亦非父兄 爲死所迫 無親可怙”

22) “장노니계” 前揭書, p. 522.

23) “장노니계”, 前揭書, pp. 534 ~ 535.

24) 上揭書, pp. 533 ~ 534.

25) T. 99 (Vol. 2) 雜阿含經, K. 44, p. 317 ⑦.

립된 것이 一生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佛陀의 父母・子女觀은 佛教敎理의 기본이 되는 12 緣起法의 三世兩重因果說²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佛陀의 父母・子女觀은 이러한 因果業報의 輪廻思想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法句經》에는

내 아들이다 내 재물이다 하여 그들은 괴로이 허덕이지만 이 「나」 또한 「나」가 아니거니 무엇을 子息이라 財物이라 근심하리?²⁷⁾

라는 偈頌은 父母와 子女 사이가 輪廻轉生하는 도중에 만나는 一回의인 관계를 넘어서 空으로 觀照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결국 佛教의 기본사상 가운데 하나인 無我思想에 입각한 父母・子女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父母와 子女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衆生이 다 同一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思想은 칼릴・지브란이 兒童에 대해 “그대 어린이는 그대의 어린이가 아니로다. 그들은 스스로를 동경하는 위대한 生命의 아들과 딸이로다. 또 설사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있다 해도 그대의 소유는 아니로다.”²⁸⁾라 한 觀點과 相通한다 하겠다.

2. 父母의 役割

1) 經典에 보이는 어머니象

原始經典인 《相應部》에서 佛陀는 어머니를 「親切한 親舊」로 表現하고 있다.

누가 旅行하는 사람의 親舊인가? 누가 우리집에 있어서의 親舊인가?…… 라는 天神의 質問에

佛陀는 隊商의 主人은 旅行하는 사람의 親舊이다. 어머니는 우리집에 있어서의 親舊이다. 朋友는 事件이 생겼을 때 몇번이나 親舊가 된다. 스스로 만든 功德은 來世의 親舊가 된다.²⁹⁾

위의 內容을 볼 때 어머니象을 尊敬과 權威의 對象이라기 보다는 어머니와 子女가 삶에 있어 가장 親密한 벗이며 同伴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 《法句經》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보인다.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 즐겁고 아버지가 있으면 더없이 기쁘다. 世上에 法師가 있어 즐겁고 天下에 道가 있어 기쁘다.³⁰⁾

이 內容을 解釋하기에 따라 道가 가장 重要하고 그다음 法師, 아버지, 어머니의 순서로 그 重要性을 볼 可能性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視角을 달리해 음미해 보면 우리生活의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그 重要性을 살핀 것으로서 어머니를 가장 중요시한 것이라고 解釋할 수도 있다. 이러한 解釋은 조금 後代의 기록인 《正法念處經》에서

보답하기 힘든 4 가지 恩惠가 있으니 첫째가 어머니恩惠며, 둘째가 아버지 恩惠며, 셋째가 如來의 恩惠, 넷째가 法師의 恩惠이다.³¹⁾

한 기록에서 父보다 母를 중요시 한 것을 볼 수 있어 위의 《法句經》에 대한 本人의 解釋에 타당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解釋은 그 時代의 歷史의인 배경과 관련해서 異論의 여지가 없지않다. 中村元에 의하면 原始佛教時代에는 兩親을 뜻할때 「母

26) 운허·용하, 불교사전, p. 53 십이연기항 참조.

27) T. 210 (Vol. 4) 法句經, K. 31, p. 563 ㉔.

“有子有財 愚惟波波 我且非我 何憂子財”

28) KAHLIL GIBRAN THE PROPHET (Alfred A. Knopf; 1923), p. 17.

29) 中村元, 原始佛教의 生活倫理, 原始佛教 5 (東京: 春秋社, 昭和 47), p. 156에서 재인용.

30) T. 210 (Vol. 4) 法句經, K. 31, p. 570 ㉔.

“人家有母樂 有父斯亦樂 世有沙門樂 天下有道樂”

31) T. 721 (Vol. 17) 正法念處經, K. 61, p. 359.

와 父』로 母를 먼저 받들며 이는 “도라부이다 人 가운데 있는 母系家族的인 觀念이 表現된 것은 아닌가” 하는 見解를 표명³²⁾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表現法이 社會慣習상 취해진 것일지라도 이것은 佛陀의 價値觀에 부합된 것이었기에 그 表現法이 그대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면, 佛陀는 어머니를 家庭에서 가장 重要한 存在 또는 親舊 같은 存在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2) 子女에 대한 父母의 義務

子女를 낳아 養育시키는 父母는 子女에게 어떤 義務를 지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佛陀의 思想을 確認하기 위해 몇가지 관련된 原始經典을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善生子經》에는 “父母도 또한 5 가지로 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느니라. 다섯가지란 집의 基業을 이룩하며, 이로운 일을 도모하며, 結婚을 시키며, 성현의 經典과 道學을 가르치며, 財産을 물려주는 것”³³⁾ 등이라 하고 있으며 또 《佛說尸迦羅越六方禮經》에서는 “첫째는 惡을 버리고 善에 들도록 하며, 둘째 學業에 힘쓰도록 가르쳐야 하며, 세째 經典과 戒律을 지니도록 해야 하며, 네째 일찌기 結婚을 시켜 주어야 하며, 다섯째 집안의 財産을 給與해 주어야 한다”³⁴⁾라는 내용이 나온다. 한편 《中阿含經》에서는 “첫째 아이를 사랑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대어주어 모자라지 않게 한다. 세째 子식에게 빚을 지 않게 한다. 네째 때 맞추어 結婚시킨다. 다섯째 財物을 즐거이 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다.”³⁵⁾ 라는 말이 나오고 또 《長阿含經》에는 “父母도 五事으로써 子女에게 敬親해야 한다. 첫째 子女를 지어하여 惡을 行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둘째 가리키고 일러주어 그 착한 것을 보여준다. 세째 慈愛함이 빠속 깊 이 스며들게 한다. 네째 善한 작을 求해준다. 다섯째 때에 따라 그 쓰임을 대어준다.”³⁶⁾ 라는 내용이 보인다. 위에 引用한 네經의 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것이다.

① 子女를 깊이 사랑해야 한다. ② 惡을 멀리 하고 善에 들게 한다. ③ 알맞은 때 結婚 시키며 ④ 經濟的인 뒷받침을 하라.

이러한 內容들은 朴先榮에 의해 考察된 바 있거니와, 父母에게는 子女에 대해 道德·學問·宗教에 대한 教育的인 責任이 있으며 아울러 結婚과 經濟的인 뒷받침을 주선하여 成家시켜 줄 義務가 있다고 佛陀는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兒童은 自由方任 되어도 좋은 存在가 아니며, 兒童에 對한 教育的인 責任은 一次的으로 父母에게 있다는 것³⁷⁾이 된다. 이는 곧 「父母의 子女에 대한 義務」에 관한 佛陀의 視點을 말하는 것이다.

3) 社會人으로서의 父母의 義務

子女에 대한 父母의 위치는 단지 子女를 낳아 養育하는 血緣的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社會를 구성하는 既成世代의 一員

32) 中村元, 前掲書, pp. 137 ~ 138.

33) T. 17 (Vol. 1) 善生子經, p. 254 ㉔.

“父母又當以五事 何謂五 興造基業 與謀利事 與媿婦教學經 道經 則以所有付授與子”

34) T. 16 (Vol. 1) 佛說尸迦羅越六方禮經, p. 251 ㉔.

“父母視子亦有五事 一者當念令去惡就善 二者當教計書疏 三者當教持經戒 四者當早與娶媿 五者家中所有當給與之”

35) T. 26 (Vol. 1) 中阿含經, K. 33 (135) 善生經, p. 641 ㉔.

“父母亦以五事善念其子 云何爲五 一者愛念兒子 二者供給無乏 三者令子不負債 四者婚娶稱可 五者父母可意所有財物 盡以付子”

36) T. 1 (Vol. 1) 長阿含經, K. 11 (16) 善生經, p. 71 ㉔.

“父母復以五事敬親其子 云可爲五 一者制子不聽爲惡 二者指授示其善處 三者慈愛人骨徹髓 四者爲子求善婚娶 五者隨時共給所須”

37) 朴先榮, 前掲書, pp. 157 ~ 158 참고.

으로서의 위치도 지닌다. 이 문제에 관한 佛陀의 思想은 《長阿含經》의 다음 內容에서 음미된다.

어버이라 할만한 四親이 있다. 이것은 많은 이익을 주고 사람의 救護가 된다. 첫째는 허물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험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요, 또 정직한 道理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사랑하는 마음과 가없이 여기는 생각을 갖고 天路를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하고 가없이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남의 이익에 기뻐하는 것이요, 잘못되는 것을 보면 대신 걱정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德을 칭찬하고 기리는 것이며, 남이 옳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세째는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를 보호하여 放逸치 않게 하고 損財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를 보호하여 두려워 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가만히 가르쳐 훈계하는 것이다. 네째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財物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의 두려움을 구제해 주는 것이며 가만히 깨우쳐 훈계하는 것이다.³⁸⁾

그런데 또 위의 4 가지 救護가 보다 체계화 된 것이 《中阿含經》에 보인다.

居士者여, 네가지 攝事가 있다. 첫째 恩惠를 베풀어주고, 둘째 정다운 말이다. 세째 이로운 行動이며, 네째 이로운 말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世尊께서 다음 偈頌으로 말씀하셨다.

恩惠를 베풀고 정다히 말하며 항상 남을 爲해 행하며 象生과 함께 이익을 나누면 그 좋은 이름이 멀리 퍼지느니라. 이렇게 世上을 攝持하는

것은 수레를 모는 것 같아, 만약 世上에 攝持者 없으면 어머니는 그 子女에게서 供養과 공경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자녀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다. 만일 이 攝法 있으면 큰 福을 얻고 멀리 비치기 햇빛 같아서 이익도 빠르게 드날리기도 빠르니라.³⁹⁾

위의 內容을 볼때, 이것은 大乘佛敎에서 佛敎徒가 社會的으로 베풀어야 할 四攝法⁴⁰⁾의 內容과 一致하는 것으로 매우 注目할만 하다. 一般人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그의 子女에게 베풀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父母는 子女의 供養과 恭敬을 받을 수 없다고 說하고 있다. 다시 말해 父母는 社會人으로서의 道理인 四攝法을 子女에게도 실천해야만 진정한 父母의 役割을 다 한다는 것이다. 이를 逆說的으로 생각해 보면, 自己 子女에 대한 깊은 사랑을 모든 兒童에게 더 나아가 모든 社會人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思想으로 解釋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이 思想은 朱貞一이 理想的인 父母・子女關係를 子女를 船艙에 父母를 港口에 비유하여 “港口와 같은 자세로 子女를 보다 넓게 이해해 주고 남의 子女들까지 包容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二世는 바르고 군세계 살아가라”⁴¹⁾이라 한 思想과 매우 부합된다고 하겠다.

3. 子女의 役割

子女의 役割을 子女의 父母에 대한 道理라는 측면에서 考察코자 한다. 《長阿含經》에

38) T. 1 (Vol. 1) 長阿含經, K. 11 (16) 善生經, p. 71 ㉔.

39) T. 26 (Vol. 1) 中阿含經, K. 33 (135) 善生經, p. 641 ㉔.

40) 보살이 衆生을 佛道에 이끌어 들이기 위한 4 가지 方法

1. 布施攝: 상대가 좋아하는 財物을 布施하여 情誼를 감동케 하여 이끌어 들임.
2. 愛語攝: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이끌어 들임.
3. 利行攝: 善行으로 衆生을 이익케 하여 이끌어 들임.
4. 同事攝: 상대의 根性에 따라 변신하여 친하게 行動을 같이하여 이끌어 들임.

41) 朱貞一, 子女敎育에세이, 敎育新書 82 (서울; 培英社, 1980), p. 83.

42) T. 1 (Vol. 1) 長阿含經, K. 11 (16) 善生經, p. 71 ㉔.

“當以五事敬順父母 云何爲五 一者供奉能使無乏 二者凡有所爲先白父母 三者父母所爲恭順不逆 四者父母正令不敢違背 五者不斷父母所爲正業”

43) T. 17 (Vol. 1) 善生子經, p. 254 ㉔, 참고.

는 “子女는 마땅히 五事로써 父母에게 敬順해야 한다. 첫째 이바지 해 받들어 모자람이 없게 한다. 둘째 무릇 할 일이 있으면 父母에게 먼저 사된다. 셋째 父母의 일에 順從하여 거스르지 않는다. 넷째 父母의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않는다. 다섯째 父母의 바른 職業을 끊이지 않게 한다.”⁴²⁾는 내용이 있다.

또 이와 大同小異한 내용이 《善生子經》⁴³⁾・《佛說尸迦羅越六方禮經》⁴⁴⁾・《中阿含經》⁴⁵⁾ 등에 보이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父母의 뜻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 ② 父母의 心身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 ③ 職業을 가져 집안을 繁昌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子女의 道理는 곧 子女가 家庭에서 해야 할 役割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佛陀의 子女役割觀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숫타니파아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自己는 豐足하게 살고 있으면서 높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破滅의 門이다.⁴⁶⁾

가진 物件이 豐足하면서도 높고 쇠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친한 사람으로 아시오⁴⁷⁾

父母・兄弟・姊妹 혹은 繼母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친한 사람으로 아시오⁴⁸⁾

父母를 섬기는 것, 妻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은 것, 이것이 위없는 幸福이다.⁴⁹⁾

法답게 얻은 財物로 父母를 섬기라.

멋뻐한 장사를 하라. 이와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在家者는 죽은 後에 〈저절로 빛이 나는 神〉들 곁에 태어나리라.⁵⁰⁾

위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도 父母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이러한 社會像에 대해 佛陀는 「法답게 얻은 財物」로써 높고 쇠약한 父母를 편안히 모시라고 說한다. 이것은 子女의 義務 혹은 복종보다 父母에 대한 尊敬 또는 扶養의 役割을 강조한 佛陀의 子女 役割觀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原始經典에는 자주 孝에 대한 敎說이 나오는데, 이 佛陀의 孝의 가르침을 子女의 父母에 대한 役割이라는 觀點에서 검토해 보겠다.

《本事經》에는 父母의 恩惠가 깊음을 여러 가지 實例를 들어 說明한 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子息은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깊고 무거운 父母의 恩惠에 보답하겠는가? 만일 父母가 佛・法・僧에 대해 청정한 믿음이 없거든 그 子女는 方便으로 나타내고 보이고 권하고 인도하고 찬탄하고 격려하고 慶賀하고 위로하여 父母가 청정한 믿음을 갖게 하고,…… 戒行을 지키게 하고,…… 부처님의 正法을 듣게 하고,…… 布施를 行하게 하며,…… 지혜를 닦게 할 것이다. 그 子女가 이렇게 하여야 비로서 진실하게 父母의 恩惠를 갚았다 하느니라.⁵¹⁾

또 조금 後代의 經典인 《正法念處經》에서도 “父母를 法中에 머무르게 하면 다소 報恩을 하는 것이다.”⁵²⁾ 라고 한 내용이 있다.

44) T. 16 (Vol. 1) 佛說尸迦羅越六方禮經, p. 251 ㉞, 참고.

45) T. 26 (Vol. 1) 中阿含經 K. 33 (135) 善生經, p. 641 ㉠, 참고.

46) 숫타니파아타, 前掲書, p. 31.

47) 上掲書, p. 36.

48) 上掲書, p. 36.

49) 上掲書, p. 67.

50) 上掲書, p. 96.

51) T. 765 (Vol. 17) 本事經, K. 4, p. 682 ㉞, 참고.

52) T. 721 (Vol. 17) 正法念處經, K. 61, p. 359 ㉞.

“若令父母住於法中 多少報恩”

이것은 佛陀가 본 孝는 父母의 「肉體的 安樂」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精神的 安定」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解釋되어진다. 아니 그보다도 宗教的 구원을 얻고 실현할 수 있도록 父母를 이끄는 것이 最上의 孝라는 佛陀의 子女役割觀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觀點을 確認시켜 주는 또 하나의 자료를 《四分律》에서 찾을 수 있다.

세가지 子女가 있으니 同等한 子女와 더하는 子女와 同等치 않은 子女이다. 同等한 자녀는 父母가 믿음·戒行·布施·智慧가 있고 자녀도 믿음·戒行·布施·智慧가 있는 것이다. 더하는 자녀는 父母가 믿음·戒行·布施·智慧가 없는데, 믿음·戒行·布施·智慧가 있는 子女이다. 同等치 않은 子女는 父母는 믿음·戒行·布施·智慧가 있는데 믿음·戒行·布施·智慧가 없는 자녀이다.⁵³⁾

이로 볼때 佛陀 自身이 父母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뛰쳐 나온 世俗的으로는 不孝者이지만, 그러나 「더하는 子女」로서 그의 父母를 濟度한 가장 훌륭한 孝子라는 論理가 위에 인용한 內容에 의해 成立된다. 이것은 子女가 父母에게 해야 할 道理인 五事가 소극적인 자세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父母를 이끌 수 있는 子女를 要求하면서, 옳지 못한 父母의 말에는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可能性을 열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宗教的 次元에 있어서의 佛陀의 子女役割觀이 確認되는 셈이다.

IV. 結 論

우리나라에서도 「韓國 어린이의 해」를 선포하면서 兒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西洋思想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 문제를 惹起하고 있으

며, 선진제국에서도 兒童中心教育이 극단에 이르러 여러 문제점이 惹起되고 있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새로운 兒童教育觀이 대두되니 社會生活中心主義 教育이 그것이다. 즉 兒童個人을 重視하면서도 同時에 兒童을 社會의 아이로 보려는 새로운 兒童觀의 觀點⁵⁴⁾이라 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兒童觀의 바람직한 紉出은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展望하면서 오늘을 確認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때 東洋思想의 重要한 하나일 뿐 아니라 韓國人의 人間觀에 크게 영향을 준 佛敎思想에 있어서는 兒童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은 重要한 研究領域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原始經典을 中心으로 佛陀의 在家兒童觀을 考察한 것이 본 研究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結論을 얻었다.

첫째, 佛敎經典을 통해서 人間發達段階를 살펴본 바, 佛敎에서는 人間의 一生을 受胎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것이 確認되었다. 이 점은 現代에 와서 胎兒期의 重要性을 認定하여 胎兒學으로 發達하는 오늘날의 人間觀을 볼때도 대단히 先覺的인 觀點이라 하겠다.

둘째, 佛陀의 그 많은 敎說 가운데 兒童에 대한 가르침은 극히 적은 양이다. 이 점은 「佛陀는 깨달음에도 敎導함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므로 佛陀自身에게는 굳이 나이 어린 것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⁵⁵⁾ 이라는 護敎論的 立場과 함께 「東·西洋을 막론하고 19 C까지는 成人과 兒童을 그 특성에 비추어 뚜렷이 구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⁵⁶⁾ 歷史的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 같다.

셋째, 佛陀가 본 子女에 대한 父母의 사랑은 가장 깊고 뜨겁게 보았으나 이 사랑이 執着이 될때 修道에 障礙가 된다고 하여 自己 子女에 대한 愛着은 옳지 못하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父母와 子女의 관계가 一回的인

53) T. 1428 (Vol. 22) 四分律, K. 58, p. 998 ㉔.

54) 小川正通外, 兒童教育學(東京; 朝倉書店, 昭和49), pp. 25~26 참고.

55) 朴先榮, 前掲書, p. 153.

56) 李貞德, 前掲書, p. 17.

또 固定的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說明되고 있다. 이러한 思想의 根源인 六道輪廻說은 現代的 眼目으로 볼 때, 科學的인 檢證을 하기 힘든 부분이기에는 하나, 오늘날 兒童教育에 있어 自己子女에 대한 排他的 愛着과 過保護의 문제가 심각함을 생각할 때, 새롭게 음미되어 질 수 있다.

네째, 佛陀는 父母의 子女에 대한 義務는 道德·學問·宗教에 대한 教育的인 責任과 함께 社會人으로서의 義務도 강조하고 있다. 이 社會人으로서의 義務는 後期 大乘佛敎思想에서 보살이 衆生을 攝受하듯, 四攝法으로 子女를 攝受하라 한 것으로, 子女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배려를 가진 兒童中心思想이면서도 排他的 子女愛 또는 過保護에 빠지지 않는 佛陀의 독특한 子女觀이라 하겠다.

다섯째, 佛陀의 子女役割觀은 子女의 父母에 대한 義務 혹은 服從보다 尊敬 또는 扶養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또한 佛陀의 子女役割觀에서는 진정한 孝란 여러 方便으로 父母를 濟度하여 믿음·布施·戒行·지혜를 닦게 하여 父母를 한층 精神的으로 向上 시키는데 있다는 독특한 孝思想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佛陀의 在家兒童觀이 現代的으로 어떻게 음미되어지고 活用될 수 있을까. 이는 人間學에 바탕한 兒童學의 측면에서 보다 깊이 研究되어야 할 새로운 課題이기도 하다. 또한 佛陀의 兒童觀을 確認하기 위해서는 佛陀의 出家兒童觀도 考察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本人의 다음 研究主題로 생각하고 있음도 밝힌다.

參 考 文 獻
〈漢文本 文獻〉

- T. 1 (Vol. 1) 長阿含經
T. 16 (Vol. 1) 佛說尸迦羅越六方禮經

- T. 17 (Vol. 1) 善生子經
T. 26 (Vol. 1) 中阿含經
T. 99 (Vol. 2) 雜阿含經
T. 125 (Vol. 2) 增一阿含經
T. 130 (Vol. 2) 佛說給孤長者女得度因緣經
T. 210 (Vol. 4) 法句經
T. 310 (Vol. 11) 大寶積經
T. 721 (Vol. 17) 正法念處經
T. 765 (Vol. 17) 本事經
T. 1428 (Vol. 22) 四分律
T. 1542 (Vol. 27)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 1562 (Vol. 29) 阿毘達磨順正理論
T. 1563 (Vol. 29) 阿毘達磨藏顯宗論

〈國內 文獻〉

- 金東華, 原始佛敎思想, 佛敎思想大全2(서울: 佛敎思想社, 1973)
朴先榮, 佛敎의 教育思想(서울: 同和出版公社, 1981)
法頂,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 샘터사, 1977)
윤허·용하, 불교사건(서울: 법보원, 1961)
李貞德, 兒童學(서울: 修學社, 1980)
朱貞一, 子女教育에세이(서울: 培英社, 1980)
朱貞一, 李柔希, 兒童福祉學(서울: 敎文社, 1981)
한글대장경 16-2 (서울: 동국역경원, 1969)

〈翻譯書〉

- 法頂(譯), 숫타니파아타(서울: 正音社, 1974)
福永勝美, 洪元植(譯), 佛敎醫學詳說(서울: 醫藥社, 1975)

〈日本 文獻〉

- 小川正通外 2人, 兒童教育學(東京: 朝倉書店, 昭和 51)
中村元, 原始佛敎의 生活倫理, 原始佛敎 5(東京: 春秋社, 昭和 47)

〈英語 文獻〉

- Gibran, K., The Prophet, Alfred A. Knopf, 1923

Abstract

Buddha's View on Children in the Family

Pack, Kung Im

Research on children should be preferably made in reference with the past thinking if it is to be affirmed by the present and to predict the future. In this respect, Buddhism, which is one of the major original thinkings in the Orient as well as the most influential religion upon Koreans daily lives and attitudes, deserves to be researched in the light of education of children. In this thesis, I have made a trial to delve into the original Buddhist scriptures to find out Buddha's outlook on home children and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1) Concerning human development stages, Buddha regarded the starting point of human life from fertilization instead of birth, even at that ancient time, and the fetal life was divided into 4, 5, or 8 stages.

2. In spite of the numerous scriptures by Buddha, very little is written about children, and even these teaching did not regard the child as an independent entity. In addition, since Buddha was a person of superior enlightenment, he did not regard the age of human beings as of great importance.

3.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uddha warned the extra ordinary attachment of parents toward children, because such attachment would be an obstacle in the search of truth. This idea was originated from his though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as not a single fixed one but of unlimited variation through numerous life times of reincarnation. This idea gives some illumination upon the problems of today's education where parent's exclusive attachment to their children and over-protection are hindrance for successful education.

4. Buddha put emphasis on parents' social duty, by which he meant that parents should care and accept not only their biological children but all children and all living things as if they were their own children.

5. Regarding the children's role to their parents, Buddha taught that children should respect and support their parents under any condition. Buddha also emphasized that true filial piety was to help parents to improve their religious status by helping them attain the truth, morality, and wisdom.

It is my intention to investigate Buddha's View on children of entering priesthood.